



판타스틱킹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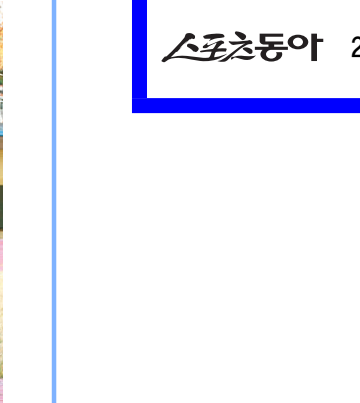
즐거운여정



자이언트펀치



나울스나이퍼



선드래곤

최우수 국산 2세마 '최후의 5파전' 개봉박두

빅게임 강자 증명 판타스틱킹덤
상승세 즐거운여정과 다시 격돌
뒷심좋은 자이언트펀치 다크호스
나울스나이퍼·선드래곤도 주목

4일 랫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주버나일 시리즈의 마지막 레이스인 '제14회 브리더스컵'(GⅡ, 1400m, 총상금 6억)이 열린다. 주버나일 시리즈는 최우수 국산 2세마를 가리는 경주이다. 첫 경주와 두 번째 경주는 서울과 부경에서 지역별로 각각 치르고 마지막 경주인 브리더스컵은 부경에서 통합 개최한다. 주버나일 시리즈의 누적승점 최고마에게는 '국산2세 최우수마' 타이틀과 함께 1억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서울마 8두, 부경마 8두가 출전한다. 유력마 5두를 소개한다.

●판타스틱킹덤(부경, 수, 레이팅56, 승률 80%, 복승률 80%)
부마는 최근 씨수마로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콩코드포인트다, 모마는 1군마 불의고리를 배출한 유니언벨이다. 좋은 혈통 덕에 지난해 10월 경매에서 무려 1억5700만 원에 낙찰되었다. 그동안 거둬들인 상금만 3억4000만 원이 넘어 기대에 걸맞는 성적을 올렸다. 데뷔전 3위를 제외하고는 전부 우승을 했는데, 그 경주들이 'Rookie Stakes@부경', '아름다운질주', '김해시장배'로 막강한 기대주들만 모인 경주여서 더욱 높이 평가받고 있다.

●즐거운여정(부경, 암, 레이팅54, 승률 40%, 복승률 100%)

출전마 중 유일한 암말이다. 하지만 전력은 수말들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현재 부경에서 판타스틱킹덤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2세마다. 부계에 스톱캣과 A.P.Indy의 피가 동시에 흐른다. 9월 1400m 일반경주에 출전해 우승했다. 당시 출전마 중 유일한 2세마였지만 2위와 5마신자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Rookies Stakes@부경'과 '김해시장배'에

서는 판타스틱킹덤에 밀려 2위를 했다. 하지만 당시 둘의 격차가 크지 않아 이번에 우승을 노려볼만 하다.

●자이언트펀치(서울, 수, 레이팅42, 승률 50%, 복승률 50%)

판타스틱킹덤과 마찬가지로 콩코드포인트의 자마로 'Rookie Stakes@서울'의 우승마다. 7월 출전했던 1000m에서는 대단한 막판 질주를 보여주며 종반 200m 구간(G1F)을 12초 1에 주파했다. 선입형 전개에 능하지만 추입도 가능한 듯 보인다. 10월 '문화일보배'에서는 초반 자리를 잡지 못하고 후미에서 레이스를 시작했지만 4코너 이후 폭발적인 스피드를 발휘해 3위로 마무리했다. 최근 다리 쪽 진료가 잦아 경주 당일 컨디션이 결과를 좌우할 듯하다.

●나울스나이퍼(서울, 수, 레이팅48, 승률 60%, 복승률 80%)

청당도끼의 부마로 유명한 투아너엔드서브의 자마다. 주버나일 시리즈의 1,

2경주에는 참가하지 않고 이번 브리더스컵에 처음 출전했다. 총 다섯 번의 출전 중 최근 세 경주에서 우승했다. 선행과 선입 모두 가능하며 가장 최근 출전한 1400m에서는 3마신 차로 여유롭게 우승했다. 그간 기승했던 문세영, 김용근 기수가 아닌 이동하 기수가 기승한다.

●선드래곤(서울, 수, 레이팅 48, 승률 50%, 복승률 100%)

첫 주행심사에서 출발불량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두 번째 주행심사에서는 곧바로 교정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데뷔 후 4번의 출전에 2번은 우승, 2번은 준우승을 차지하며 복승률 100%를 기록 중이다. 출발 직후 빠르게 선두를 차지해 침착하게 끌고나가는 선행마다. '문화일보배'에는 출전하지 않았고 '농협중앙회장배'에서는 새내타운에게 밀려 머리차로 2위를 했다. 이번 경주가 첫 원정경주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거리는 최고블랙·야무진재수 V 갈증 풀까

12월 첫 주말 '제9회 MBN배'

슈퍼엑톤, 유일하게 1600m 경험
꾸준한 성적 거둔 아르폰스도 주목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12월 첫 주말, '제9회 MBN배'가 열린다. 4일 랫츠런파크 서울에서 진행되는 1600m 혼합 4등급 경주다. 3세부터 6세까지 10두가 출전한다.

●최고블랙(수, 한국, 3세, 레이팅40, 승률 40%, 복승률 40%)
세계 최고의 씨수마로 평가받는 타팃의 손

자마다. 올해 3세에 데뷔한 신예 국산마로 5번 출전해 2승을 기록했다. 하지만 거리를 늘려가면서는 승수를 더 올리지 못하고 있다. 막판 역전을 노리는 추입마로 최근 출전한 1400m에서 뒤를 받치다가 4위까지 올라서는 주행을 선보였다. 라타 조교사와 마찬가지로 데뷔 이래 가장 많은 경기 출전과 최다 상금, 최다 우승 등 가장 빛나는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강성오 조교사(9조)의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야무진재수(거, 미국, 3세, 레이팅39, 승률 0%, 복승률 16.7%)
2007년, 2008년 미국에서 올해의 경주마에

올랐던 컬린의 손자마다. 혈통은 이미 입증됐고 최고블랙처럼 올해 데뷔해 꾸준히 경력을 쌓고 있다. 아직 우승 기록이 없지만 최근 1400m로 거리를 늘리면서 중거리에서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상위권은 충분히 노려볼만한 기대주다.

●슈퍼엑톤(거, 한국, 5세, 레이팅39, 승률 3.8%, 복승률 13.8%)

한국경마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명마 트리플나인, 미스터파크를 탄생시킨 엑톤파크가 부마이다. 모마인 슈퍼플러키는 경주마 경험이 있는 말이다. 출전마 중 가장 많은 출전수(29전)를 기록해 그 만큼 전력이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출전마 중 유일하게 1600m 경험이 있다. 두 번 출전해 3착을 한 번 기록했다. 1600m 출전이 가장 최근이라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2020년 2월 1400m 출전 이후 승수를 쌓지 못해 이번 경주에서 베테랑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아르폰스(수, 미국, 6세, 레이팅40, 승률 3.8%, 복승률 7.7%)

출전마 중 가장 나이가 많다. 꾸준히 전적을 쌓고 있는 경주마로 최근 출전한 다섯 경주에서 5착을 벗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다. 다소 왜소한 체격이지만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MBN배와 비슷한 거리인 1700m 기록이 떨어져 있어 한동안 1200m, 1400m 등 중단거리에 집중해 왔다. 10월 농협중앙회장배(L) 우승으로 첫 대상경주 우승을 따낸 서흥수 조교사(24조)가 담당한다.

김재범 기자

골프

‘골프계 키다리아저씨’ 이대우 대표이사 “KPGA코리안투어 개최도 구상”



‘골프계 키다리아저씨’로 불리는 브릭의 이대우 대표이사. 브릭 골프단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KPGA 코리안투어 정규투어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현 기자 won@donga.com

“많은 선수 지원 하려고 ‘브릭 골프단’ 창단 공격적인 권성열, 맹동섭 선수 좋아해 후원 이성호 선수는 프로암서 만난후 인연 맺어 브릭 선수들, 행복하게 투어 활동 했으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2022년 창설한 ‘위믹스 KPGA 프로골프 구단리그’가 성황리에 첫 시즌을 마무리했다. 구단리그에는 하나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CJ, 대보그룹, 무궁화신학 등 남자골프단을 운영 중인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참가했다. 그런데 19개 참가구단 중 골프팬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낄만한 구단이 하나 있다. 바로 ‘브릭(BRICK)’이다. 2020년 권성열(36)의 메인스폰서를 맡은 브릭은 지난해 맹동섭(35)에 이어 이성호(35)까지 영입하며 올해 총 세 명의 선수로 골프단을 운영했다.

브릭은 정식회사명인 ‘㈜브릭프로퍼티스’의 줄임말로 물류창고 개발 및 운영, 물류창고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국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팬들엔겐 다소 낯설지만 오래전부터 남녀 프로선수는 물론이고 아마추어 선수들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 골프계엔 ‘키다리 아저씨’로 불린다.

일반 소비자와 접촉면이 크지 않아 ‘홍보 목적’의 구단 운영은 필요 없는 회사가 골프계에 남다른 애정을 쏟고, 남자골프단까지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브릭 이대우 대표이사(43)와 마주하자 궁금증은 곧바로 풀렸다.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브릭 본사에서 만난 이 대표 표는 “KPGA 한현희 부회장님과의 인연으로 아마추어 조우영 선수를 후원한 적이 있다”며 “조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이고 아마추어 랭킹 1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더 많은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골프단을 창단했다”고 설명했다.

“4년 전까지 싱글플레이어였는데 요즘은 80대 중반 티수를 친다”는 그는 “평소 골프를 즐기는 애호가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권성열, 맹동섭 선수를 좋아해 후원하게 됐다. 이성호 선수는 프로암에서 만나 KPGA 코리안투어 프로로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면서 인연을 맺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골프는 남녀노소가 누구나 즐겁게, 공정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다”며 “우리 브릭 선수들도 즐기는 자세로 투어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순위에 연연하다 슬럼프를 겪거나 무리한 출전으로 건강이 상하는 일 없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투어에서 활동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에는 30대 중반 소속 선수들을 아끼는 진심이 묻어났다.

“골프단 운영은 회사 홍보 차원이 아닌 KPGA의 발전과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강조한 이 대표는 “남자골프 발전에 더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크다.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에 코리안투어 대회를 직접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자골프 선수들은 여자골프에 비해 훨씬 열악한 상태에서 투어를 소화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친 이 대표는 “KPGA에서 뛰는 모든 선수들이 희망을 가지고 투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업이 남자골프 선수들 후원에 나서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도훈 기자 dohoney@donga.com